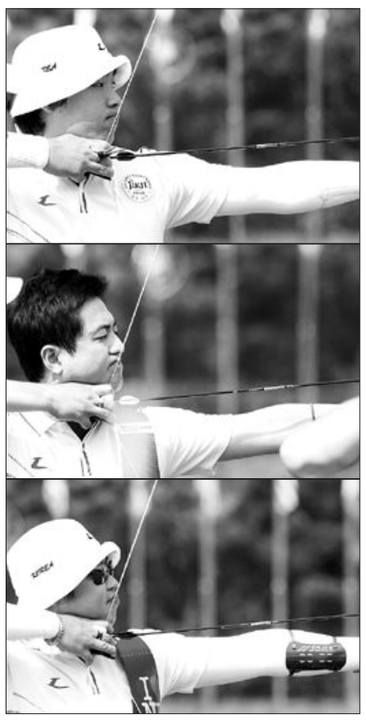
태극 남녀궁사 숲 싹쓸이 '정조준'



〈위쪽부터 임동현, 이창환, 오진혁〉

세계양궁 리커브 단체전 결승 동반 진출 이어

여 컴파운드팀도 멕시코 꺾고 사상 첫 결승행

한국 남녀 리커브 대표팀이 나란히 세계선수권 단체전 결승에 진출했다. 또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도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노린다.

오진혁-이창환-임동현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7일 오전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계속된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7일째 단체전 4강에서 일본을 231-226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231점은 한국이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세계신기록과 타이다.

남자팀은 러시아와 8강에서는 1엔드에서 점 차로 뒤지기도 했지만 결국 8점 차로 역전하는 저력을 보였다.

주현정-윤옥희-곽예지가 짝을 이룬 여자팀은 벨라루스를 225-216으로 여유있게 누르고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팀은 16강부터 4강까지 안정된 전력을 선보이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남녀팀은 8일 각각 프랑스 및 일본과 결승전을 치른다. 개인전에서 여자가 2명, 남자가 3명이 각각 결승에 오른 한국은 리커브 전 종목 석권을 노린다.

여자 개인전에서 유일하게 준결승에 오르지 못한 윤옥희는 "개인전 메달을 못따는 만큼 단체전에서 죽기살기로 쐈다"라며 "남자도 단체전 결승에 오른 만큼 (리커브) 전 종목을 석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자 대표팀의 이창환은 "내색은 않았지만 (여자 양궁에) 소외받기 싫어서 더욱 열심히 했다. 전 종목 석권까지 반 정도 왔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자팀이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지고 있어도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대표팀이 구성된 여자 컴파운드의 서정희, 권오향, 석지현도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4강전에서 멕시코를 226-224, 두 점 차로 꺾고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노린다. /연합뉴스

〈위쪽부터 주현정, 곽예지, 윤옥희〉

광주 1,256명 전남1,685명

10월 전국체전 선수단 확정

오는 10월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광주·전남 선수단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총 44개 종목이 개최될 이번 체전에 광주 선수단은 수중·카누·세팍타크로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총 1천256명(선수 928명·임원 328명)이 참가한다.

부별로는 고등부 523명·대학부 150명·일반부 493명으로 구성됐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체전 44개 종목에 총 1천685명(선수 1천244명·임원 441명)이 출전하며 고등부 650명·대학부 164명·일반부 77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0월20일부터 7일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등 65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총 2만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

영암군 민속 씨름단 '氣 Gift' 창단

이준우·배항해 등 선수 2명

전남 영암군이 민속 씨름단을 창단한다.

영암군은 8일 영암군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 체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氣 기프트(Gift) 씨름단' 창단식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름단은 이준우(한라급·한라장사 1회)와 배항해(금강급·용장급 1위 1회) 등 선수 2명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영암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와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해 씨름단을 창단했다"며 "씨름단은 유니폼에 무화과, 달마지 쌀 골드, 매력 한우 등 영암 통합 브랜드를 새기고 각종 대회에 출전, 홍보 마케팅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유연한 여체의 곡선

벨로루시의 멜리티나 스타니우타가 7일(한국시간) 일본 미에현 이세에서 개막된 리듬체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로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파이더걸' 김자인 국제대회 첫 정상에

'스파이더 걸' 김자인(21·고려대)이 준우승 징크스를 떨쳐내고 국제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자인은 6-7일(한국시간) 이틀간 이탈리아 아르코에서 열린 '록 마스터(Rock Master) 초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난이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스포츠클라이밍 심판이자 김자인의 모친인 이승형(51)씨가 7일 전했다. /연합뉴스

'역도 스타' 슈타이너 고양 세계선수권 참가할 듯

역도 스타 마티아스 슈타이너(27·독일)가 올해 1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은 7일(한국시간) "지난 1월 탈장 수술을 받았던 슈타이너가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세계 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해 고양에서 개최될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빛고을 축구 최강전' 16강 확정

15일부터 11일간 매일 2게임씩

광주상무축구단이 주최하는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축구 축제 '제1회 빛고을 광주 1315 축구 최강전'의 16강 대진이 결정됐다.

광주상무축구단은 7일 오후 축구단 사무국에서 16개팀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대진 추첨을 갖고 8강 진출을 다투게 될 16개 팀의 대진을 확정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6강 경기는 오후 5시 각 팀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며 25일까지 매일 2경기씩 진행된다.

8강전까지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4강전과 결승전은 각각 오는 10월 11일과 24일 K-리그 상무 홈 경기 오픈경기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한편 지난달 22일 효광중과 상무중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대회 32강전 예선 32경기에는 총 147골이 터지는 등 경기당 평균 4.6골이 쏟아지면서 풍성한 골잔치가 펼쳐졌다.

서강중 손찬 선수는 두 경기에서 5골을 터트리며 대회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고, 하남중 여운용 선수는 4골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대회 득점왕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상패가 수여된다.

손찬을 앞세운 강력한 우승후보 서강중은 또 다른 우승후보인 살레시오중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돼 미리보는 결승전을 연출하게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태영-유원철 '평행봉 듀엣쇼' 펼친다

19~20일 '체조갈라쇼' 출연

남자 기계체조 간판스타인 양태영(29)과 유원철(25·이상 포스코건설)이 장기인 평행봉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둘은 19~20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릴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2009-세계체조갈라쇼'에 출연, 평행봉에서 듀엣연기를 펼친다. 양태영과 유원철은 6개 개인 종목 중에서도 평행봉에서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왔다.

유원철은 작년 베이징올림픽 평행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체조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고 양태영은 같은 종목에서 7위에 올랐다.

기술 점수를 중시하는 일반 대회와 달리 예술적인 면을 부각하는 갈라쇼에서 둘은 평행봉 양끝에 자리를 잡고 그간 쌓아온 기량을 맘껏 펼칠 예정이다.

혼자서 평행봉 양끝을 오가며 정해진 순서대로 연기를 펼쳤던 것과 달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처럼 둘이서 통일성과 개성을 강조한 독특한 연기를 펼쳐 체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태영〉

〈유원철〉

19일 오후 7시, 20일 오후 3시 열릴 갈라쇼의 가격은 VIP석이 11만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B석 4만4천원, 프리석(3층) 2만2천원이다. /연합뉴스

스포츠 주개

8일(화)

▲제45회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단체결승(13 : 40·MBC)

▲2009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결승전(14 : 10·KBS1)

▲2009 프로야구〈SK : KIA〉(18 : 10·KBS n스포츠) 〈한화 : 롯데〉(18 : 15·SBS 스포츠) 〈히어로즈 : 두산〉(18 : 15·MBC ESPN·Xports)